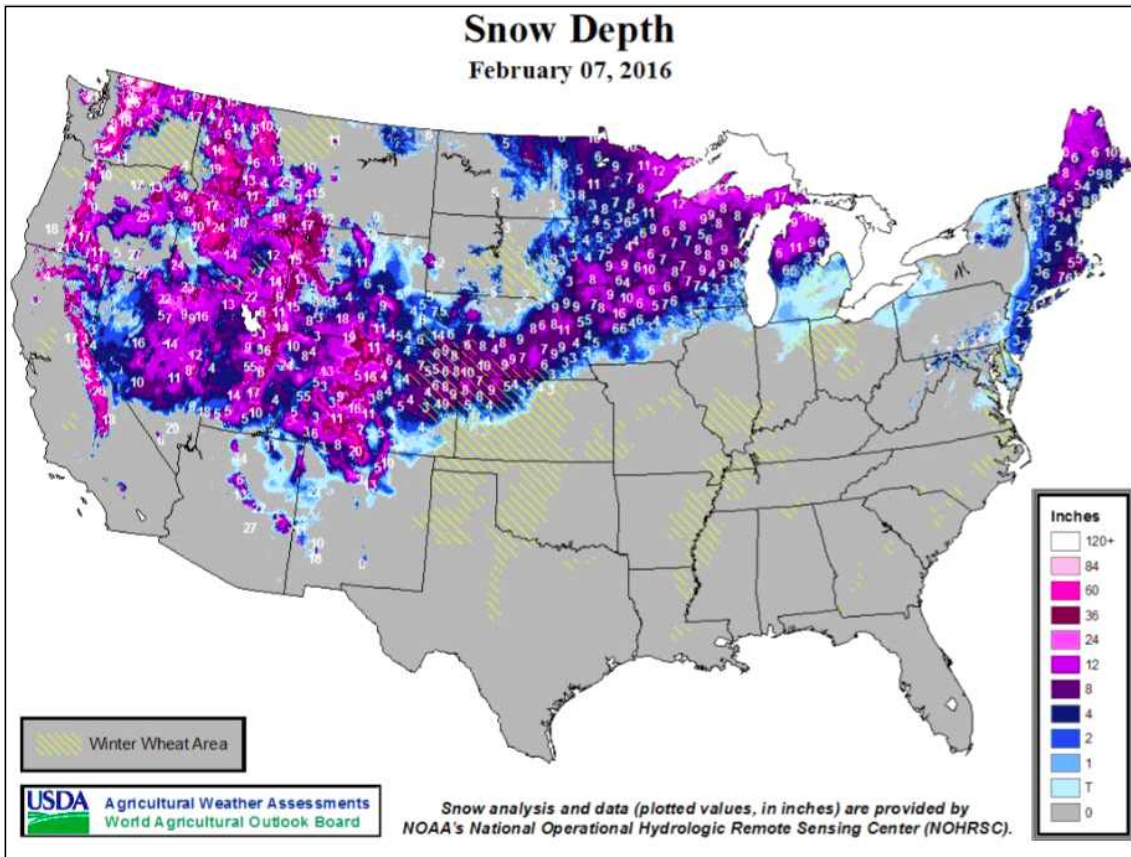




2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6)

□ 미국 기후 현황(1/31~2/06)

찬 대기가 이동하면서 서부 전역의 기온이 내려갔다. 내륙 산간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10~20°F 이상 낮았다. 이와 달리 동부와 북중부 일대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다. North Dakota, Ohio를 비롯한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한편, 남서부 일대에서는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중부 평원과 중서부 등에서는 눈이 내렸고, 남동부 일대의 버지니아 남동부, 플로리다 북부, 대서양 연안 일대 등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량이 4인치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북중부와 남중부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캔사스 북서부와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등에서는 주말까지 눈이 이어졌다.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서부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기도 했다.



## □ 농업 현황 요약(2/1~2/7)

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는데, 특히 뉴 잉글랜드 지역은 평년 대비 10°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서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로키산맥 중부 일대 등에서는 평년보다 10°F 이상 기온이 내려가기도 했다. 미 전역에서 강우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서양 연안의 조지아,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강우량이 3인치 이상을 기록할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1/31~2/6)

■ 유럽: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한주동안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평년보다 4~8°C 정도 기온이 높았다. 갑작스런 기온 상승으로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눈이 녹아내렸다.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 등 남부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밀과 보리 재배지역에서는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2~8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중부와 남부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녹아내렸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러시아 북부의 코카서스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5~11°C 정도 기온이 높았고, 농경지를 덮고 있던 대부분의 눈이 녹아내렸다. 밀 재배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밤 동안의 낮은 기온에(영하 1~5°C) 밀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까지 오르면서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과 러시아 Volga 지역 일대에서는 여전히 농경지에 눈이 남아 있어(10~25cm) 추위로 인해 작물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5~30mm 내외의 비도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 일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일대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여름작물의 생육을 도와주었다. 퀸즐랜드 중부와 남부에서는 25~75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뉴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Buenos Aires 북부 일대와 인근의 Cordoba,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이들 지역은 지난 몇 달간 건조한 날씨를 보였으나 최근에 내린 비로 이례적인 고온으로 인해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다소 해소해 주었다. 중부와 북부 일대의 곡창지역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은 대체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Snatiago del Estero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 브라질: 대두, 옥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 재배지역 일대에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남부에서는 최소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에서부터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최고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북동부 내륙지역의 Bahia 남서부에서는 10mm 내외, Maranhao의 면화, 대두 재배지역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이후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사탕수수, 커피 등을 재배하는 Sao Paulo에서부터 Bahia 남동부에서도 점차 비가 내리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Mato Grosso, Tocantins, Parana, Sao Paulo, Minas Gerais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의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